

2009년 01월 15일 (목) 15:01 [연합뉴스 보도자료](#)

### 경기문화재단, 국내 최초 문화복지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국내 최초의 문화예술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협력사업으로 기록

문광부에서도 2009년 시범사업을 통해 2010년 전국으로 확대할 사업

국내 최초의 문화예술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협력사업으로 기록될 [경기문화재단](#)의 '2008년도 취약계층 문화복지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보고서가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2007년 첫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 진행해 온 취약계층 문화 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악기교습, 재가방문문예활동, 마을잔치개최 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2008년도에는 인문학 강좌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외형적으로 확대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은 국내 최초로 시도된 본 사업에 대해 지난 2개년간의 사업내용과 담당자 평가, 참여 강사 평가, 대상자 소감문, 모니터링 총평을 엮어 지원사업을 한눈에 총결산해 볼 수 있도록 '2008년도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지원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들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만큼 대내외적 관심이 높은 것은 물론 향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본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2년동안 시행해 온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에는 전국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아직도 생소한 문화복지 영역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함께한 사회복지사들과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프로그램 강사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마을잔치를 빛 낸 공연단체의 노력, 그리고 본 사업의 주인공인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문화복지의 새 장을 열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과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경기문화재단의 문화나눔사업은 이와 같은 변화와 사회양극화의 가속화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동안 일방적인 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문화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문화복지 영역을 새롭게 확장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로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한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1997년 창립되어 올해로 창립 12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기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전개해 왔으며 '매력적인 문화예술을 통해 신명나는 삶을 가꾸는 경기문화재단'이라는 비전(Vision)과 '문화예술이 품고 있는 창조적 에너지를 지역사회와 모든 세대에 발현시킴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문화예술에 녹아든 감성과 지혜를 나누는 성숙한 삶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미션(Mission)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사진설명 >

1. 문촌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한 허수아비 꾸미기의 결과물들
2.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마을잔치에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력을 뽐내고 있다
3. 광명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마을잔치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재롱발표

(끝)

출처 : 경기문화재단